

석사학위논문

무용작품 「Peel」에 관한 연구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정 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Peel」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Peel」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박정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Peel」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Peel」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박정무

박정무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박 재 홍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정 석 순 (인)

국 문 초 록

무용 작품 「Peel」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정 무

본 논문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주제로 하여 사회 속 개인의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표현한 무용 작품 「Peel」에 대한 작품 분석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자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현상인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억압한 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주체적인 삶과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표현하고자 「Peel」을 창작하였다.

작품에서 소재로 사용된 ‘착한 아이 콤플렉스’란 사회의 틀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쓴 채 연기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사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착한아이 가면에 지배당하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무용 작품 「Peel」에서는 사회 속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맞춰가며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내면을 마주하며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와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실되었던 자아를 확립시키며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연구자 외에 4명의 무용수와 함께 작품을 진행하였으며 Intro를 포함하여 총 5장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무용 작품 「Peel」의 창작과정과 연구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타인의 평가들보다 더 중요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와 내면의 성장의 기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이다.

【주요어】 인간관계, 주체적인 삶,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자아존중감, 성장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착한 아이 콤플렉스	4
2.1.1 자아상실	8
2.2 자아존중감(자존감)	11
2.2.1 인간관계와 자아존중감	12
III. 무용 작품 「Peel」에 대한 연구	16
3.1 작품형식 및 구조	16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18
3.2.1 움직임 표현방법	18
3.2.2 의상	18
3.2.3 조명	22
3.2.4 음악	23
3.2.5 소품	26
IV. 작품 분석	29
4.1 Intro & 1장	31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31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2
4.1.3 음악과 조명	33

4.2 2장	34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34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4
4.2.3 음악과 조명	35
4.3 3장	36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36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6
4.3.3 음악과 조명	37
4.4 4장	38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38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8
4.1.3 음악과 조명	39
 V. 결 론	 41
참 고 문 헌	43
부 록	47
ABSTRACT	50

표 목 차

[표 2-1]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내면과 특징	6
[표 3-1]	17

사 진 목 차

[사진 3-1] 무용수1 의상	20
[사진 3-2] 무용수2 의상	20
[사진 3-3] 무용수3 의상	20
[사진 3-4] 무용수4 의상	20
[사진 3-5] 무용수5 의상	21
[사진 3-6] 색채의 연상과 상징	21
[사진 3-7] 복면을 착용한 모습 전면	26
[사진 3-8] 복면을 착용한 모습 후면	26
[사진 3-9] 소품으로 활용한 의상1	26
[사진 3-10] 소품으로 활용한 의상2	26
[사진 3-11] 무대에서 활용된 소품1	26
[사진 3-12] 무대에서 활용된 소품2	26
[사진 4-1] 미성숙한 인간	32
[사진 4-2] 관계의 시작	32
[사진 4-3] 샤워의 과정	32
[사진 4-4] 옷이 입혀지는 과정	32
[사진 4-5] 인간관계	34
[사진 4-6]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에 의해 움직여짐	34
[사진 4-7]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35
[사진 4-8] 벗어날 수 없음	35
[사진 4-9] 갈등의 심화1	36
[사진 4-10] 갈등의 심화2	36
[사진 4-11] 갈등의 심화3	37
[사진 4-12] 갈등의 심화4	37
[사진 4-13] 갈등에 지쳐 쓰러짐	38
[사진 4-14] 번데기	38
[사진 4-15] 탈피 후의 매미	39

I. 서론

본 논문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주제로 사회 속 개인의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표현한 무용 작품 「Peel」에 대한 연구·분석 논문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관계 속 인간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과 감정 등을 학습하며 성장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란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¹⁾으로 인해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의존하며,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착한 아이’ 상태로 자신을 억압하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신조어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상태의 현대인은 자기주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듯 보이지만, 이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서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신경증, 우울증, 무기력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동반한 인격 장애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진행되며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심리상태인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한 연구과정 중 착한 아이 콤플렉스 외에도 예스맨,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가면 우울증 등의 주체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 상태들을 발견하며 현대인들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같은 심리 상태를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며 문제를 제기하고자 무용 작품 「Peel」을 제작하였다.

1) 박방초, (2016). "융 심리학으로 본 콤플렉스 이해."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본 연구자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 현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란 인간관계에서 버림받고 비난받지 않고자 타인에 의해, 타인을 위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본 연구자가 바라본 주체적인 삶이란 타인에게 미움 받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는 곧,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삶으로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렇기에 알프레드 아들러²⁾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고 말한다.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가 얽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아들러는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거듭 강조한다.³⁾

무용 작품 「Peel」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ntro & 1장에서는 사회에 나오기 위한 필수과정인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행위인 샤워와 옷을 입는 과정을 타인에 의해 행해지고 입혀지며 자아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2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억압하며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무용수들끼리 강제적으로 몸을 밀착시켜 타인에 의해 이동되거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3장에서는 신체접촉 움직임을 활용한 듀엣, 트리오 움직임과 리프팅 동작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와 그에 비롯된 여러 갈등상황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4장에서는 타인에게 입혀진 옷을 벗는

2) 알프레드 아들러, 1870년 2월 7일 ~ 1937년 5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사회주의자이자 심리학자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린다. 또한 심리치료사로서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아들러는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생각했고,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인간이 자신이 본래 가진 긍정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뚜렷한 목적의식과 노력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3) 기시미 이치로. (2014). 『미움받을 용기』 서울: 인플루엔셜

행위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 인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용 작품 「Peel」에 대한 연구 분석으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II장은 작품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작품의 의도와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알아보고 IV장에서는 작품을 각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V장은 결론으로 무용작품 「Peel」 창작과정과 연구과정을 돌아보고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착한 아이 콤플렉스

콤플렉스(complex)의 사전적 의미는 라틴어 com(함께)과 plectere(짜기)가 합쳐져서 생긴 말로 ‘짜진 것, 엉켜서 복잡한 것’을 말한다.⁴⁾ 즉, 콤플렉스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얽혀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응어리이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 복합적인 감정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정 자극어와 결합하여 무수히 많은 종류의 콤플렉스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약한 부분이나, 마음이 불편하고 찢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콤플렉스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열등감과 동일시하는데 열등 콤플렉스는 많은 콤플렉스 중 한 종류일 뿐이다.⁵⁾ 분석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콤플렉스는 대부분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난 감정과 사고의 복합물이며, 자아의식에서부터 분리된 정신요소들로 자아의식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말한다.⁶⁾

이러한 콤플렉스들이 모여 사회의 풍조와 사회 구성원들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지 고통스러운 삶이 될지는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⁷⁾

4) 오채환. (2008). 『융이 들려주는 콤플렉스 이야기』. 서울: 자음과모음, p.125.

5) 이지연. (2017). "성서 '탕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침묵 속에 가려진 것들」에 나타난 관계적 의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김성민. (2004).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p.144.

7) 박방초. (2016). "융 심리학으로 본 콤플렉스 이해."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착한 아이 콤플렉스”란 가족과 사회의 관계적 틀 안에서 자신의 고유하고 진정한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⁸⁾, 흔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가면에 맞는 연기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개인의 내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콤플렉스화 된 것이다. 이 심리의 이면에는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신념과도 같은 강박감이 있다.

아이들은 자랄 때 가족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내적 제약을 스스로 만들고 그에 맞춘 행동을 하게 된다.⁹⁾ 부모가 바라는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 관계와 타인에게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죄책감과 좌절감을 반복하며 착한 아이 가면에 지배당하는 거짓 삶을 사는 것이다.¹⁰⁾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의 내면은 늘 우울하다. 타인의 욕구에 맞춰 순응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타인과 부딪히기를 싫어한다. 더 나아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따라서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만 한다. 다른 사람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며 명령에 응하는 수동적인 생활태도가 몸에 배어 자신감이 결여되고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¹¹⁾

8) 원영재. (2010). "착한아이 콤플렉스"로 인한 한국교회 봉사자들의 심리적 역동과 내적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 상계논문.

10) 상계논문.

11) 이지연, 전계논문.

이들은 주로 부모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자, 혹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고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주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환경, 자신의 감정 표현이 수용되지 않는 환경,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¹²⁾ 이러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겪는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정은호(2011)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표 2-1]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내면과 특징

우울감	늘 우울함, 타인의 욕구에 맞춰서 행동하고 순응하는 생활태도,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욕이 없고 우울한 상태
소외감, 고립감	혼자 있기를 좋아함, 착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관계가 피곤하기에 되도록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싫어함
열등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함,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그림
피해의식, 불안함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있음,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행동하며 타인에게 과잉 반응함
자아 상실	타인을 의식하며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의사대로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숨김

12) 정은호, (2011). "목회자 자녀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그 극복."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고, 주체성이 없으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좌절감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고 타인의 필요와 요구를 자기 내면을 억압하고 희생하면서 채워주며 인정받고자한다. 이들은 자아실현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이러한 지나친 착한 아이로서의 역할은 개인에게 정서적, 물질적 고갈¹³⁾을 가져오며 만약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으려 죄책감을 느낀다.¹⁴⁾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착한 아이 콤플렉스 상태의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아르바이트생 2,276명을 대상으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9%가 스스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했으며, 업무 중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경험한 알바생도 84.2%나 됐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손님과 동료에게 항상 밝아 보이려 노력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였으며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손님의 무리한 주문에 싫은 티를 내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대답하며 이러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원인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¹⁵⁾

현 사회에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같은 심리적 불안 상태를 나타내는 ‘예스맨’,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가면 우울증’, ‘관계 중독’ 등 다양한 용어

13) 박방초, 전계논문.

14) 상계논문.

15) 금강일보, 송영두(2017)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83.9%)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있다”, (2017.12.14.)

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을 말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곧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기에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에 개인이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타인에 의한 내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건강한 자아, 주체적인 삶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2.1.1 자아상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띤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기에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고 내면을 억압하며 주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곧, 자아 상실이라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자아란 의식의 중심으로 날 때부터 인간의 의식 아래 잠재적으로 존재하면서 성장과정을 통해 발달하거나 퇴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인간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맺기 위한 작용을 주관하는 주체이다.¹⁷⁾ 자아는 인간 의식에 집중하며,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준다. 우리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을 거부할 의식이 있는 것이며 자아는 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식의 중심에

16) 박방초, 전계논문.

17) 윤예진. (2020). "자아 상실로 인한 무의식 속 욕망 표현 연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 자아는 힘을 갖고, 이에 의해 인간은 많은 양의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량의 의식적 내용들을 수집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충동적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에 자아가 쉽게 무너진다.¹⁸⁾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위이다. 이러한 인정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며, 자아를 실현하는데 이처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¹⁹⁾ 하지만, 현대인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SNS의 등장으로 인해 광범위한 대상과 얽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자신의 내적인 가치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타인의 반응에 스스로를 규정하며 자기 존재를 약화시킨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인들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와 감정을 숨겨야하는 상황을 맞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²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수가 많아지며 범위가 다양해짐으로써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를 상실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외롭고 소외되어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고유의 개별성을 상실한 채 타인에게 스스로를 맞추며 살아간다.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 1909-2002)은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1950)에서 이렇게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타인과

18) 김미술. (2021). "칼 융의 자기실현을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나를 향해 질문하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 민상천. (2018).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사회 교리적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김미술, 전제논문.

세상의 흐름에 맞춰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유형을 ‘타인지향형 인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개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의 기반에 있어 타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소외된 고독한 존재이며²¹⁾, 사회에서 소외됨에 불안감을 느끼며 타인의 시선에 더욱 고립된다. 이는 곧 자아라는 대상을 깊이 사유할 여유가 없이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은 없고 타인만 존재하는 관계를 맺으면 오로지 타인에게만 의존하게 된다. 그리하여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나’는 내가 원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본성과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주체적인 삶을 살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연의 자아를 탐색하고 성찰함으로써 자율성을 키우며²²⁾ 수동적인 자아가 아닌 능동적인 자아를 통한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으로 자기 발전을 이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개인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개개인의 고유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스스로의 삶에 목적성을 가진 존재로서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하였다.²³⁾

21) 민세리. (2020).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을 모티프로 한 무용창작작품 「흔들리는 경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상계논문.

23) 이소미. (2016).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THE RED」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자아존중감(자존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²⁴⁾로, 개인이 “자신은 가치 있고, 존경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²⁵⁾ 하며 ‘자존감’과 같은 의미이다. 자신의 능력과 신체적 특성과 같은 복합적인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의 스스로를 평가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다. 따라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부정적인 자기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심함과 억압감, 타인에 대한 의식과 의존심이 많다.²⁶⁾ 또한 관계에서도 타인으로부터 사랑 받거나 인정받는데 중점을 두어 타인의 설득에 쉽게 순응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²⁷⁾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폭력, 비행, 마약, 우울증 등의 위험 요소 등과 관련²⁸⁾이 있으며 낮은 자존감과 반대로 존중받기 위한 도구를 획득하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데 집착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여성의 경우에는 외모,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봉이 존중받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명품, 외제차, 학력, 사회적 지위 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짜 자존감에 불과하다.²⁹⁾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외적이거나 물질

24) 이미선. (2007).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5) 전대수. (201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대인관계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6) 박지연. (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7) 박상화. (2017). "기혼자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8) 상계논문.

적인 것들로 포장된 가짜 자존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진짜 자존감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들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뜻하기도 한다.³⁰⁾ 자존감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³¹⁾되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 발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욕구, 갈등, 불안감, 타인의 긍정이나 반대, 비난, 칭찬과 인정 등의 자극에 의하여 변화하고 발달³²⁾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존감은 개인의 전 생애에 영향을 주며 성격, 행복 등 개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과 연결성³³⁾을 가지고 있기에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³⁴⁾

2.2.1 인간관계와 자존감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과정에 따라서 점차로 또래관계, 동료관계, 이성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이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게 된다.³⁵⁾ 인간관계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인상과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29) 김태형. (2018).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경기도: 갈매나무, p.110~111

30) 서윤비. (2020). "성인초기여성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에 미술치료가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 김소형. (2011). "직장인의 자아존중감 및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2) 유재근. (2004).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3) 상계논문.

34)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35) 우영숙. (2014). "대인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지능,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된다.³⁶⁾ 조화롭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개인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고, 건전한 성격 발달을 이루며, 자아존중감, 행복감, 욕구만족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되며 한 단계 더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한다.³⁷⁾

자존감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만족과 효과적인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일상적인 생활 사건들을 직면할 때 나타나는 반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존감은 내적 요인이지만,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개인의 심리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³⁸⁾

이러한 인간관계와 자존감은 각 연령대별로 어떠한 환경 속에 속해있고 어떠한 관계들로 주변이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먼저 아동기는 신체적, 생리적 성숙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발달해 가는 시기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가며 또래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 하여 사회적 유능성을 갖게 되는데, 초등학교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심한 우울이나 좌절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기도 한다.³⁹⁾ 그렇기에 아동기의 인간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아동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⁴⁰⁾

36) 상계논문.

37) 상계논문.

38) 정현진. (2014). "자존감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9) 황영희. (2016).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0) 박은희.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 시기에 낮은 자존감은 낮은 학업성적, 우울,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이나 교칙 위반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⁴¹⁾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낮은 자존감을 지닌 청소년이 자신의 평가를 낮추는 사회적 경험을 피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보상적인 행동이나 수단⁴²⁾으로서 나타난다.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⁴³⁾이 크다. 청소년 시기에 높은 자존감은 풍부한 표현력, 높은 자부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과 존중, 시선, 적극적인 생활태도 및 원만한 인간관계⁴⁴⁾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 시기는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타인과 성숙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낮은 자존감은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며 인간관계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로인해 소외감,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게 된다.⁴⁵⁾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대학생활 전반에 불만족과 의욕상실, 학업적 적응의 저해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격발달에 큰 방해⁴⁶⁾가되기도 한다.

직장인의 자존감은 개인의 조직적 환경 내에서 조직구성원으로 행동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지는 자기지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유능감과 관

41) 권은희, 조삼복. (2018). "눈치가 중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1): 327-342.

42)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43) 심혜선, 전종철.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44) 아영아, 박선숙.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0.(39): 95-117.

45) 박성규, 정현희. (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우울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58: 87-113.

46)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련⁴⁷⁾이 있다. 직장인들에게 자존감의 향상은 사회적 경쟁력의 확보와 동시에 업무 성취도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승인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⁴⁸⁾시키기도 한다.

중년기와 노년기는 배우자와 가족친지의 상실, 사회적 고립, 활력의 감소, 노화에 따른 신체적 조건의 저하, 사회활동과 역할의 기회 등의 감소 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노화와 관련된 상실감은 자존감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높은 자존감은 노화한 자신이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며 우울과 절망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감소⁴⁹⁾시킨다. 즉, 노인의 자존감은 성공적인 노화와 인생을 만족해하면서 생애를 마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서이며, 남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⁰⁾

현대인에게 인간관계와 자존감이란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상호보완적인 요소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현대인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통한 건강한 인간관계란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내적인 소통을 통해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아가 타인에 의해 상실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개인의 정체감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관계⁵¹⁾이다.

47) 이정현. (2005).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8) 안채윤. (2019).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620-631.

49) 민순,장숙희,박재경. (2001).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과의 관계연구." 『노인간호학회지』 3.(2): 135-145.

50) 김홍동. (2016). "노인에 대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1) 박지연. (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Ⅲ. 무용작품 「Peel」에 대한 연구

3.1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의 작품 「Peel」은 사회 속 인간관계에서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주제로 안무한 작품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착한 아이 가면을 쓴 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극복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하며,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작점인 자아 발전의 내용을 작품 내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관계, 갈등, 자아성장 3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으며,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라 소품과 조명, 음악 등의 연출적인 요소를 통해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을 구상하였다. Intro를 포함하여 총 5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면이 변화될 때마다 조명, 음악, 움직임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면 전환하였다.

무용 작품 「Peel」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Intro를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표 3-1]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3-1]

장면	내용	표현방법	음악	시간
Intro	미성숙한 자아	누워있는 연구자를 향해 각자 다른 동선과 태도를 취하는 무용수들과의 관계 형성	무음	3분
1장	타인으로 인해 맞춰지는 모습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잠에서 덜 깬 상태)인 연구자와 연구자를 움직이는 무용수들 간의 대비	Edith Piaf - Non, Je Ne Regrette Rien	2분 23초
2장	인간관계의 형성과정	타인에게 입혀진 옷을 입고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연구자와 무용수들과의 관계 형성.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표현한 장면.	무음 & 라디오 잡음	7분
3장	갈등	인간관계 속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무용수와 연구자의 바디 컨택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장면	라디오 잡음과 장작이 불타는 소리	3분
4장	성장	매미의 탈피과정을 비유하여 관계를 상징하는 옷 속에서 빠져나오는 장면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 새 소리, 매미 소리	약 4분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표현방법

무용 작품 「Peel」은 현대무용 움직임을 기반으로 창작되었으며 소품을 활용한 움직임, 무용수와의 신체 접촉 움직임과 리프팅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인간관계와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를 제외한 무용수를 4명 출연시켰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미지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의상이자 소품인 옷을 활용하여 사회에 나오기 위한 과정인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행위를 타인에 의해 행해지고 입혀지며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용수들끼리 몸이 밀착된 채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동되거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자와 무용수와의 신체 접촉 움직임을 듀엣, 트리오, 무용수 4명과 연구자의 리프팅 동작 등을 통하여 갈등의 심화 단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의 마지막 장에서는 번데기 상태에서 탈피하는 매미를 옷더미 속에서 빠져나와 옷을 벗는 움직임을 통해 관계를 통한 성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3.2.2 의상

공연예술에서 무대의상은 무대 위에서 입을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이자 공연에서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혹은 미적 표현수단으로써 사용된다. 무대의상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캐릭터 창조, 인물 간의 상호관계

설정, 극에 대한 정보 및 분위기 전달, 시각예술로서의 효과 등이 있다(인용문)⁵²⁾ 무대 의상은 공연예술의 한 축으로 의상 그 자체로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며, 무용수가 행하는 움직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조명을 포함한 무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에드윈 윌슨(Edwin Willson 1966)은 “무용 의상은 무용이란 표현성에 중점을 두고 무대효과를 본위로 하기 때문에 무용 의상은 작품의 이미지와 주제에 맞도록 디자인되고 무대효과와 목적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⁵³⁾ 또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폭제 역할을 하는데, 현시대에서는 작품의 분위기와 안무자의 의도 하는 바에 따라 무대 의상과 일상복의 차이가 희미해지기도 한다.

무용 작품 「Peel」에서 의상은 무용수들이 입고 있는 검은색 의상과 연구자가 입고 있는 흰색 의상으로 나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세미 정장&캐주얼 정장으로 정하였으며 무용수들의 검은색 의상은 와이셔츠, 셔츠와 재킷, 셔츠와 재킷, 니트 등으로 같은 검은색 의상이더라도 개인마다 차별성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타인이 원한다고 연구자 스스로 착각하며 착한 사람을 연기하며 자기 스스로 억압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무난한 하얀색 와이셔츠와 비슷한 색상인 베이지 색 정장바지를 착용하였다. 이와 대비되게 다른 무용수들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타인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수동적인 연구자와 다르게 능동적인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해 각자 다른 의상을 착용하였다.

52) 이문재. (2013). “공연예술에서 무대의상이 관람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3) 이선초. (2007). “무용공연에 나타난 작품의상에 관한 연구 : 서울무용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사진 3-1 무용수1 의상]



[사진 3-2 무용수2 의상]



[사진 3-3 무용수3 의상]



[사진 3-4 무용수4 의상]



[사진 3-5 무용수5 의상]

6-1 무채색의 연상 언어

흰색	청순, 결백, 신성, 웨딩드레스, 청정
회색	평범, 소극적, 차분, 쓸쓸함, 안정, 스님
검은색	밤, 악함, 강함, 신비, 경숙, 슬픔, 불안 상복, 모던, 장엄함, 죽음, 공포

6-2 유채색의 연상 언어

구분		톤		
		밝은 색의 경우	순색의 경우	어두운 색의 경우
색상	빨간색	행복, 봄, 온화함, 젊음, 순정	기쁨, 경열, 강렬, 위험, 혁명	힘, 답답함, 무거운
	주황색	따뜻함, 기쁨, 명랑, 애정, 희망	화려함, 악동, 무질서, 명예	가을, 풍요, 칙칙함, 엄격, 노후됨, 중후함
	노란색	미숙, 활발, 소년	황제, 환희, 발전, 노폐, 경박, 도전	신비, 풍요, 어두움, 음기
	연두색	초보적인 신록, 목장, 초원	생명, 사랑, 산뜻, 소박	안정, 차분함, 자연적인
	초록색	양기, 온기, 명랑, 기쁨, 평화, 희망, 건강, 안정, 상쾌, 산뜻	희망, 휴식, 위안, 지성, 고독, 생명	침착, 우수, 심원함(깊은 숲, 산 등 연상)
	파란색	젊음, 하늘, 신, 조용함, 상상, 평화	희망, 이상, 진리, 냉정, 젊음	어두운, 근심, 쓸쓸함, 고독, 반성, 보수적
	남색	장엄, 신비, 천국, 환상, 차가움	차가움, 영국 왕실, 이해	위엄, 숙연함, 불안, 공포, 고독, 신비
	보라색	귀인, 고통, 고귀, 우아, 근엄, 부드러움, 그늘, 실망	고귀, 섬세함, 퇴폐, 권력, 도발	공포, 불안, 무거움
	자주색	도회적, 화려함, 사치, 섹시	궁중, 왕관, 권력, 허영	신비, 중후, 견실, 칙칙함, 고풍, 고뇌, 우수

<사진 3-6> 색채의 연상과 상징

박옥련, 김은정. (2007). 『Color 색 色』. 서울:형설출판사

3.2.3 조명

조명이란 무대장치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빛’을 말한다. 이영미(2000)는 무대조명의 기능을 동작의 설정 기능, 시각화 기능, 분위기 설정 기능, 주제 강조 기능, 이야기 내용의 무대화 기능으로 주장하였다. 무대조명이란 조명광학(기술, 과학)과 미의식(감각, 예술)의 복합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라는 매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의식적, 계획적인 빛을 공연행위에 따라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비추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빛이라는 시각적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다.⁵⁴⁾ 무대조명은 조명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작품 내용과 조화를 얼마나 이루는 지에 따라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⁵⁵⁾ 이러한 조명은 무대 위에서 무대예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공연 시 주제, 의상, 장치, 분장 등을 통합시켜 일관성을 갖도록 해주며, 무대 장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빛의 존재는 절대적이다⁵⁶⁾ 같은 무대공연예술인 연극이나 뮤지컬이 얼굴 중심으로 보이는 반면에, 무용은 몸 전체를 비춰야 하므로 일반적인 무대공연에서 사용되는 조명 사용 방법과 다른 양상을 지닌다. 즉, 무용 공연에서 조명의 역할은 무용 작품이 지니고 있는 흐름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해줌으로써 관객들에게 공연에 더 몰입하여 공감케 하고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용 작품 「Peel」 에서 조명의 역할은 관객들이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54) 구자현. (2009). "무용예술에 있어 무대조명에 관한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5) 이영미. (2000). "무용공연에서 조명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6) 이주현. (2001) "무용작품에 나타난 시각적 효과 연구 :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과 DV8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록 돕는 장치이자 장면전환과 장면에서 연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3.2.4 음악

오늘날 예술은 타 장르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표현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내고 아예 다른 장르와 융합하고 예술 자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금까지의 예술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중 무용과 음악은 예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무용과 음악은 각각 독립된 예술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왔다.

무용 작품에 있어서 음악이란 무용수와 관객 사이의 매개체 역할과 무용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무가들에게는 안무가의 감정과 사상을 표출하는 움직임에 음악을 결합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무용창작에 있어서 음악은 소재와 형식을 제공해주고, 상황의 전개를 암시하며 분위기를 설정함과 동시에 무용수에게 리듬을 제공해 움직임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⁵⁷⁾고 볼 수 있다.

무용 작품 「Peel」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음악과 무음악을 포함하여 총 3 가지이다. 1장에서는 작품 내에서 유일하게 가사가 있는 노래인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 1915~1963)의 “Non, Je Ne Regrette Rien”이다. 최희진(2020)은 위 노래의 가사와 곡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7) 손현지. (2012) "음악을 이용한 무용창작작품 「Illus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가사의 내용 : (‘나’는 지금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와 있다)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행한 악이든 선이든 그것은 지금 하등의 차이가 없다. (나는 오직 삶의 매 순간을 경험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은 대가를 치렀고, 지웠고, 잊어버렸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끔 추억이 떠올라 지난 열정이 그림기도 하지만, 이제 더는 내게 슬픔도 기쁨도 필요치 않다. 전율하는 사랑에 대한 기억들도 이젠 다 지웠다. 이제 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기에. 내 인생과 기쁨은 다시 너와 시작될 것이기에.⁵⁸⁾

곡 해석 : 이 곡은 화자의 단순한 사랑의 노래로 해석될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 맞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선택과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온 한 인간의 독백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사랑의 노래로 해석한다면 ‘나’는 새롭게 다가온 사랑에 다시 설렘과 희열을 느끼는 두려움 없는 존재이다. 반면 죽음을 목도에 둔 화자의 독백으로 본다면, 삶의 지평을 본인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열어온 우주적 영웅성을 지닌 존재의 고백이다. …… 이 노래의 가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개척해 나아갔던 개인사가 자연스럽게 중첩된다. 선택과 행동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선과 악의 구별 없이 자신에게 닥친 모든 사건이 존재의 진화를 위해 필연적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⁵⁹⁾

본 연구자는 무용 작품 「Peel」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음악으로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Regrette Rien”을 사용하였다. 위 음악은 도입부에서부터 힘찬 트럼펫 소리로 시작된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희망에 가득 찬 시작의 의미로서 트럼펫 선율을 통해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 연구자는 무용 작품 「Peel」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이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음악에서는 자기 자신에 선택과 행동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게 닥친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이 자신의 존재적 진화를 위해 필연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곡의 내용이 인간관계는 필연적이고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타인과의 끝이 아닌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의견과 유사하였다. 또한 무용 작품 「Peel」의 마지막 4장에서 타인에게 입혀진 옷을 벗고 스스로 나아가는 장면에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1장에서 사용하여 4장에 대한 복선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58) 최희진. (2020).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 상송의 보편성에 관하여 ‘죽음’의 수사와 ‘영성’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46.1(2020), 259-284.

59) 상계서. 276.

Intro 장면과 2장에서는 음악적 사용 없이 무음상태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무용수들의 발자국 소리, 걸어 다니며 옷이 자연스럽게 스치는 소리 등으로 음악사용 없이 장면을 표현하여 음악사용에 대한 강박 없이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객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무음을 통하여 음악이 사용되는 부분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음악사용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라디오 잡음 소리와 장작이 불타는 소리를 사용하였는데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작이 불타는 소리를 함께 사용하여 타인과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구자와 무용수 간의 신체 접촉 움직임을 듀엣으로 진행하는 움직임이 등장하며 이러한 장면에서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라디오 잡음과 장작 타는 소리를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 새소리, 매미 울음소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4장은 연구자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타인과 사회에 순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아의 성장을 표현한 장면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세상을 향해 울 듯이 타인에게 덮여진 옷들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마주한 채 걸어 나가는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실제 바람 소리와 새소리, 매미 울음소리를 제작하여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무용 작품 「Peel」에서 사용된 3 가지의 음악은 연구자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라디오 잡음과 장작 타는 소리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청각화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겉모습이 아닌 자기 내면을 인식하여 자아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매미의 탈피에 비유하여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2.5 소품



[사진 3-7 복면을 착용한 모습
전면]



[사진 3-8 복면을 착용한 모습
후면]

무용 작품 「Peel」에서는 무대 위에서 연구자가 입고 있는 기본 의상인 살색 이너를 제외한 모든 의상을 소품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ntro 장면에서 무용수가 무대 위로 등장하며 무대 위에 널려있는 옷들을 바라보고 옷을 만지며 구경하는 연기를 한다. 1장에서는 옷더미 속에서 연구자에게 입힐 옷을 꺼내와 무용수들끼리 건네주며 동작을 이어가기도 하고 연구자에게 소품인 옷을 강제적으로 입히는 움직임 등을 통해 작품에서 연기적 표현과 움직임적 표현을 돕는다. 마지막 4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입고 있던 의상과 복면, 널려있던 의상들이 쓰러져있는 연구자 위에 덮여지며 마치 옷으로 만들어진 무덤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옷더미 속에서 빠져나와 타인에게 입혀진 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즉, 껍데기를 쓰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용수들이 검은색 복면을 착용하여 작품 내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타인의 이미지를 두려운 존재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사진 3-9 소품으로 활용한 의상1]



[사진 3-10 소품으로 활용한 의상2]



[사진 3-11 무대에서 활용된 소품1]



[사진 3-12 무대에서 활용된 소품2]

서로 색이 다른 의상들을 플로어 위에 사람이 입고 있는 상·하의 형태로 배치시키거나 소매와 바지 밑단, 혹은 다른 셔츠와 소매를 서로 묶어서 무대 위 조명을 고정시키는 고정 바에 늘어놓으며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사복들을 무대 위에 배치시켜 놓음으로서 무대 공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현시대속 삶과 동일시하게 볼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표현하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단순히 작품 안에서 다뤄

지는 내용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만연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즉 무대 위에 존재하는 옷들은 연구자와 무용수가 존재하는 무대와 관객들이 존재하는 객석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IV. 작품분석

- 안 무 : 박정무
- 출 연 : 박정무, 이우빈, 이진우, 차시원, 박규영
- 음 악 : Edith Piaf - Non, Je Ne Regrette Rien, 라디오 잡음과 장작이 불타는 소리 제작, 나무에 스치는 바람소리, 새소리, 매미 울음소리 제작
- 소 품 : 옷(와이셔츠, 바지, 재킷 등의 상·하의)
- 작품 시간 : 약 20분
- 발표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후 7시 30분
- 발표 장소 : M극장

1. 작품 제목

- <Peel>

본 연구자는 인간의 삶에서 다양하게 생겨나는 관계와 관계 속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연구자 스스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왔다. 허나 자아를 상실한 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던 ‘껍데기(갈등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로의 의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연구자 본인의 의지를 담은 ‘껍질이 벗겨지다(인간관계 속 갈등상황을 통한 연구자의 성장)’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작품의 제목을 「Peel」로 정하였다.

2. 작품 주제

- 미움받을 용기

3. 작품 의도

- 매미는 번식활동을 위해 자기 몸의 반절 이상을 비워놓고 특이한 울음소리를 낸다. 소리가 워낙 커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기에 매미는 자기 청각을 끄고 켤 수 있는데 약 20일에서 1달 남짓의 짧은 삶 동안 매미는 열렬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다 죽는다.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포장해오기만 해왔던 나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어쩌면 매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위해 숨겨온 내가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기위한 변화,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인간관계를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까지의 과정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4. 작품 내용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학교 및 직장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낯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개인 간, 혹은 조직과 구성원 간 등 여러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삶의 과정 중 나는 얼마나 ‘나’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왔는가? 라는 의문에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지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랑받고자 그들이 원하는 ‘나’를 마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연기하진 않았는가? 타인에게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나 자신을 상처 입혀가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냥 난 ‘나’에게 솔직해질 생각이다. 미움 받을까 두려워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맞추고 순응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보듬어주고자 한다. 포장된 내가 만들어 온 관계들이 본연의 ‘나’를 드러냄으로써 무너지고, 끊기고, 부러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쌓고 이어 붙이면 된다.

지금의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에 나와 맺어질 누군가를 위해 부딪쳐 보고자 한다.

4.1 Intro & 1장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현대인의 모습을 잠자고 있는 인간의 무방비한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인간이 사회에 나오기 위한 필수과정 중 하나인 아침의 샤워를 하며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듀엣, 트리오 안무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행해짐으로서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현대인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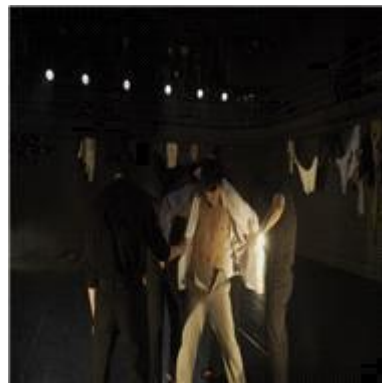
[사진 4-1]미성숙한 인간



[사진 4-2]관계의 시작



[사진 4-3]샤워의 과정



[사진 4-4]옷이 입혀지는 과정

Intro와 1장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다른 형태의 현대인들을 표현하였다. Intro는 무용적인 움직임보다는 행위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였으며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간을 잠에서 깨지 못한 비몽사몽한 상태로 묘사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검은 옷과 복면을 쓴 채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게끔 강요

하고 자기주장을 펼치는 무용수들과, 그러한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며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연구자의 신체 접촉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Intro에서는 무용수들이 무대로 각자 다르게 등장하며 개개인들마다의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잠을 자고 있는 연구자를 깨우며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신체 접촉 움직임을 통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움직여지고 옷이 입혀지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dith Piaf의 “Non, Je Ne Regrette Rien”을 사용하며 노래의 진행에 따라 2인무, 3인무, 5인무로 점차 움직임의 가동범위를 확장시켰다.

4.1.3 음악과 조명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Intro는 무용수들마다 각자 다르게 등장하며 다른 행동을 하는 개개인의 캐릭터를 통한 마임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무음으로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Edith Piaf의 “Non, Je Ne Regrette Rien”에 맞춰 신체 접촉 움직임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래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연구자가 무용수들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컨셉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장면과 무대 위에 설치된 소품을 보여주고자 전체 조명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위치한 센터 쪽에만 탑 조명을 열게 주어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연구자의 모습 또한 강조하고자 하였다. 음악이 시작되면서 무대 위에 화이트 계열의 조명으로 바뀌며 작품의 본격적인 시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고 음악이 고조되는 엔딩 부분에서 전체적인 조명을 동시에 밝혀 자아 없이 움직여지는 대로만 행해지는 연구자와 강제로 행하게끔 만드는 무용수들의 대비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4.2 2장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며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입혀진 옷을 벗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옷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생겨나는 인간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러 관계 속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여지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5]인간관계



[사진 4-6]인간관계 속에서 타인들에 의해 움직여짐



[사진 4-7]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사진 4-8] 벗어날 수 없음

자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된 올바르지 못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직선적이며 로봇처럼 끊어지는 무용수들의 다양한 동선이동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함께 연구자를 강제적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빠져나가는 걸 끌어당기며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사회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무용적인 동작보다는 무용수들끼리 몸을 밀착시켜 버둥거리거나 타인의 체중으로 인해 움직여지거나 밀쳐지고 잡아당겨지는 움직임을 연구하였다.

4.2.3 음악과 조명

1장에서 사용된 음악이 끝나고 난 후 무음상태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무용수들과 연구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장면을 발자국 소리, 걸어 다니며 옷이 자연스럽게 스치는 소리 등을 음악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무음상태로 작품을 진행하며 무용수들이 한 줄로 서서 동선이동이 되는 장면부터 라디오 잡음 소리를 사용하였다.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리로 비유하고자 하였다.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통해 불꽃을 연상하여 전반적으로 붉은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풋 조명을 활용하여 무대 상수와 업 스테이지 쪽 벽에 무용수들의 그림자를 비춰 단순하게 눈에 비춰지는 갈등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3 3장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2장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표현하였다면 3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동선이동과 연구자에게 행하는 강제성을 띤 움직임이었다면 3장에서는 갈등과 부딪힘을 컨셉으로 움직임을 동작화하여 연구하였다. 2인무, 3인무에 이어 무용수 전원과 연구자가 하는 신체 접촉 움직임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부딪히는 움직임의 질감과 음악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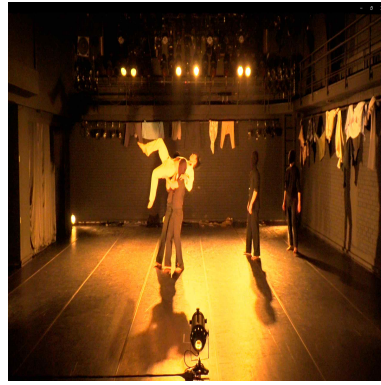
[사진 4-9]갈등의 심화1



[사진 4-10]갈등의 심화2



[사진 4-11]갈등의 심화3



[사진 4-12]갈등의 심화4

다양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자와 무용수와의 신체접촉 움직임을 듀엣, 트리오, 무용수 4명으로 인해 연구자가 움직여지는 동작과 리프팅 동작을 통하여 갈등의 심화단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옷을 활용하여 2인무와 3인무를 갈등을 컨셉으로 창작하였으며, 쓰러져있는 연구자를 밟고 지나가는 등 갈등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용수 4명으로 인해 움직여지는 동작을 통해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괴로움, 무력감, 고통 등을 강제로 행해지는 움직임의 질감을 통해 표현하였다.

4.3.3 음악과 조명

2장에서 사용된 라디오 잡음 소리와 함께 장작이 불타는 소리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 발생하는 잡음(갈등)과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장작이 불타는 소리를 추가하여 타인과 부딪히는 갈등상황을 움직임과 함께 청각화 시키고자 하였다.

2장과 비슷하게 갈등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기에 조명은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연상시키는 조명을 사용하였다. 동선이동이 주가 되는 2장과 다르게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이드 조명의 비중은 줄이고 무대 전체조명과 백라이트를 사용하였다.

4.4 4장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현대인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자아의 확립과 성찰에 대한 시간을 통해 입혀진 옷을 벗으며 자아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마지막장에서 담고자 하였다. 이를 긴 세월을 땅 속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땅 위로 올라와 탈피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매미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숲 속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연상시키기 위하여 바람소리와 새소리, 매미 울음소리를 음악적 요소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나의 걸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인식하고 마주하며 자아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매미의 탈피에 비유하여 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13]갈등에 지쳐 쓰러짐



[사진 4-14]번데기



[사진 4-15]탈피 후의 매미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옷 속에서 타인에 의해 입혀진 옷을 벗고 나오며 번데기 상태에서 탈피하는 매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용적인 움직임보다는 옷 더미 속에서 옷을 벗으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옷 더미의 떨림을 통해 탈피하는 매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옷 더미 속에서 빠져나오며 미처 벗어내지 못한 옷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지로 벗어내었다.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조명 밖으로 걸어 나가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현대인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4.4.3 음악과 조명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 새소리, 매미 울음소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4장은 연구자가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사회에 순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아의 성장에 대해 표현하고자 한 장면이다. 이를 바람이 스치는 나무

소리와 함께 매미소리, 새소리를 함께 사용하여 숲 속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를 상실한 채 쓰러진 연구자와 무용수를 대비시키기 위하여 사선 길 조명을 사용하였다. 쓰러진 연구자 위로 무용수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소품들을 연구자 위로 덮으며 서서히 탑 조명으로 전환된다. 화이트 계열의 탑 조명을 비춤으로 덮여진 다양한 옷들의 색, 질감, 디자인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등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옷더미 속에서 빠져 나온 연구자가 무대 엽 스테이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갈 때 백라이트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조명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어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V. 결 론

본 논문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주제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표현한 무용 작품 「Peel」의 주제 구상단계부터 공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구상하며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인해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현대인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Peel」이라는 작품에 본 연구자를 투영시켰다.

작품을 통해 착한 아이 콤플렉스 상태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아를 상실한 채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며 자신을 억압하는 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한 개인의 모습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작품을 창작했다. 또한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의 내용과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조명, 음악, 소품 등의 표현요소들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무용 작품 「Peel」을 연구,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같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가면성 우울증 등 다양하게 나타난 신조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연구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인식하였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곧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에 작품에서는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이와 비슷한 심리 상태로 인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높은 자존감과 주체적인 삶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 마지막 장에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한 개인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외에도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이론적 배경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가면성 우울증 등 자아 상실로 인한 현대인의 심리 상태들을 발견하며 현대인의 정신적 건강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자아의 상실을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작품의 러닝타임과 명확한 주제 전달을 위해 모두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추후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작품 제작 활동을 지속하며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과정을 거듭할수록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무용 작품 「Peel」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벗어난 주체적인 삶의 필요성은 현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공감과 위로이며 연구자 스스로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구자현. (2009). "무용예술에 있어 무대조명에 관한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강일보, 송영두(2017)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83.9%)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있다”, (2017.12.14.)
- 기시미 이치로. (2014). 『미움받을 용기』 서울: 인플루엔셜
-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 김미슬. (2021). "칼 융의 자기실현을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나를 향해 질문하다」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민. (2004). 『융의 심리학과 종교』 . 서울: 동명사, p.144.
- 김소형. (2011). "직장인의 자아존중감 및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형. (2018).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경기도: 갈매나무, p.110~111
- 김홍동. (2016). "노인에 대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은희,조삼복. (2018). "눈치가 중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1): 327-342.
- 민상천. (2018).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사회 교리적 연구." 대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세리. (2020).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을 모티프로 한 무용창작작품 「흔들리는 경계」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순,장숙희,박재경. (2001).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과의 관계연구." 『노인간호학회지』 3.(2): 135-145.
- 박방초. (2016). "융 심리학으로 본 콤플렉스 이해."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

- 박상화. (2017). "기혼자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규,정현희. (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우울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58: 87-113.
- 박옥련, 김은정. (2007). 『Color 색 色』 . 서울:형설출판사
- 박은희. (2015)."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희,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박지연. (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윤비. (2020). "성인초기여성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에 미술치료가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현지. (2012) "음악을 이용한 무용창작작품 『Illusion』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유나. (2015). "장르의 혼합을 통한 주체성과 다중적 자아에 관한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혜선,전종설.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 아영아,박선숙.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0.(39): 95-117.
- 안채윤. (2019).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620-631.
- 오채환. (2008). 『움이 들려주는 콤플렉스 이야기』 . 서울: 자음과모음, p.125.
- 우영숙. (2014). "대인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지능,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근. (2004).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남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예진. (2020). "자아 상실로 인한 무의식 속 욕망 표현 연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문재. (2013). "공연예술에서 무대의상이 관람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 무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선. (2007).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초. (2007). "무용공연에 나타난 작품의상에 관한 연구 : 서울무용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미. (2016).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을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THE RED」 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미. (2000). "무용공연에서 조명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현. (2005).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현. (2001) "무용작품에 나타난 시각적 효과 연구 :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과 DV8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2017). "성서 '탕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침묵 속에 가려진 것들」 에 나타난 관계적 의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원영재. (2010). "'착한아이 콤플렉스'로 인한 한국교회 봉사자들의 심리적 역동과 내적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대수. (201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대인관계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호. (2011). "목회자 자녀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그 극복."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진. (2014). "자존감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희진. (2020).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 상송의 보편성에 관하여 ‘죽음’의 수사와 ‘영성’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46.1(2020), 25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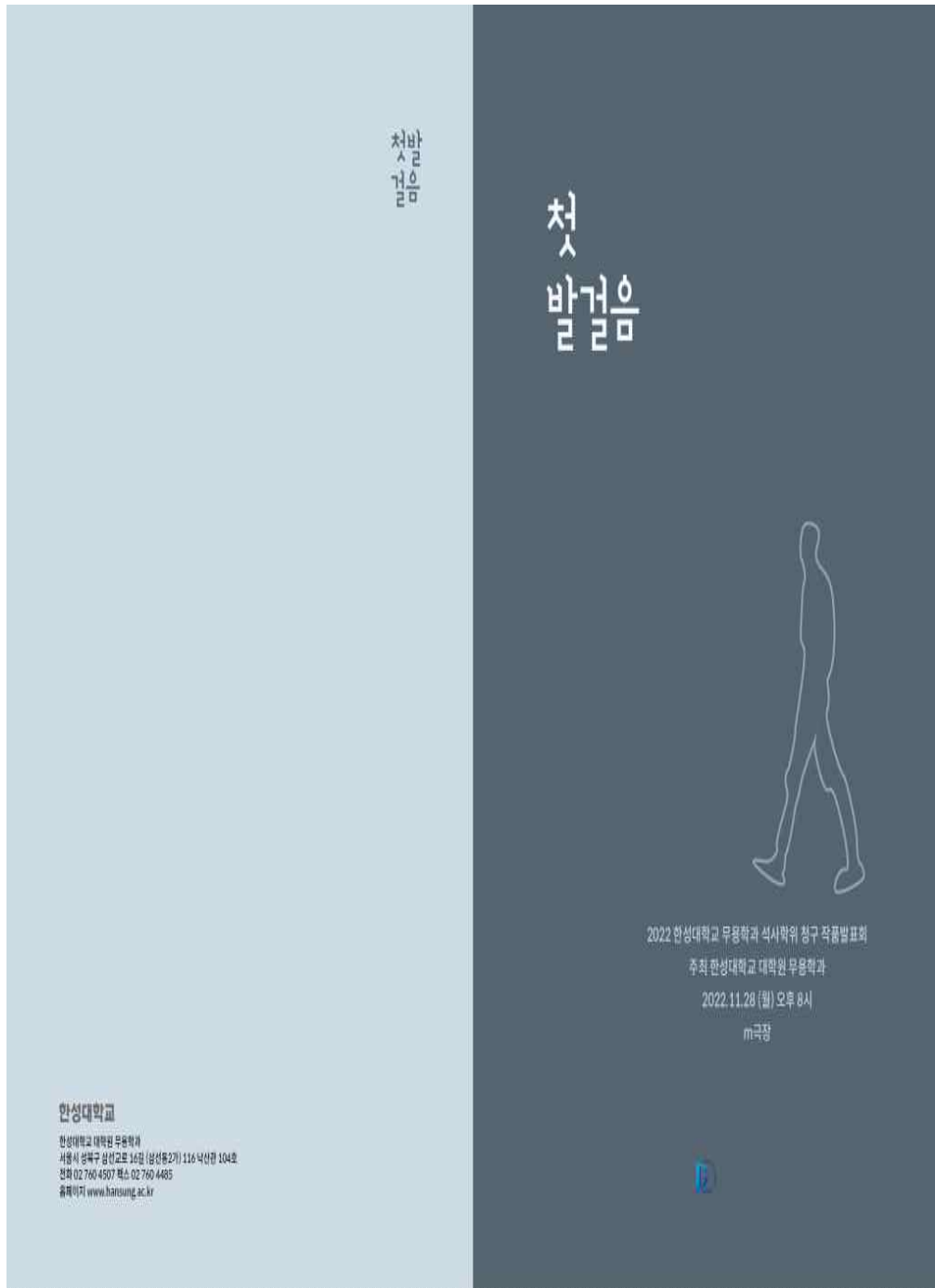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허윤행. (2000). "에릭슨의 자아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정립".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영희. (2016).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Peel
일 시	2020년11월 28일 월요일 PM 7:30
장 소	M극장
안무자	박정무
출연진	박정무, 이우빈, 이진우, 박규영, 차시원
무대감독	.
조명감독	주 영 석
영상감독	김효경

팜플렛



PEEL 안무 박정무

기획 의도

매미는 번식활동을 위해 자기 몸의 반절 이상을 비워놓고 특이한 울음소리를 낸다. 소리가 매우 커서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기에 매미는 자기 청각을 끄고 켤 수 있는데 약 20일에서 1달 남짓의 짧은 삶 동안 매미는 열렬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다 죽는다. 평소엔 인간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나 스스로를 포장해오기만 해왔던 나는,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어쩌면 매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위해 숨겨온 내가 아닌 오히려 나로서 살기위한 변화,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인간관계를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까지의 과정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학교 및 직장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낯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개인 간, 혹은 조직과 구성원 간 등 여러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며 이러한 삶의 과정 중 나는 얼마나 '나'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왔는가? 라는 의문에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지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랑받고자 그들이 원하는 '나'를 마치 껌데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연기하진 않았는가? 타인에게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나 자신을 상처 입혀가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냥 난 '나'에게 솔직해질 생각이다. 미움 받을까 두려워서 일방적으로 맞추고 나를 포기해가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보듬어주고자 한다. 포장된 내가 만들어 온 관계들이 본연의 '나'를 드러냄으로써 무너지고, 끊기고, 부러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쌓고 이어 붙이면 된다.

지금의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에 나와 맺어질 누군가를 위해 부딪쳐 보고자 한다.



박정무

출연



이우빈



이진우



박규영



차시원

ABSTRACT

Analysis of Dance Work 「Peel」

Park, Jung-Mu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researches and analyzes the meanings and structures of work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nce work 「Peel」, which expresses the life of an individual who is not autonomous in society, focusing on the theme of a good child complex.

Through the ‘good child complex’, a social psychological phenomenon that appears in a rapidly changing and developing modern society, 「Peel」 was created to express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 having an independent life and will with regard to human relations, instead of being suppressed by themselves and constantly conscious of how others view them. The ‘good child complex’ that was used as material in the work, refers to a state of mind in which one acts in a false way, wearing the mask of a good child who does not live with his or her own unique appearance within the framework of society. To be recognized and loved

by society and not alienated, they live a false life dominated by the mask of a good child.

The dance work 「Peel」 attempted to express the process of human beings being conscious of how others in society see them and thus trying to mold themselves to others, losing their identity, and then facing their inner selves and growing. By establishing the self that was lost relationships with others, it tried to teach about the importance of an autonomous life based on self-esteem in human relationships. Thus, in order to effectively convey the image of human relationships as the researcher thinks it to be, the work was conducted with four dancers in addition to the researcher, and it consisted of a total of five chapters, including the intro.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and research process of the dance work 「Peel」, this researcher realized that one should live an autonomous life based on self-esteem,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what is required in society and the evaluations of others derived from human relationship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inform that the good child complex can lead to changes in relationships with oneself and opportunities for internal growth.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among various social relationships is my relationship with myself.

【Key Words】 Human relationship, an independent life, Good Child Complex, self-esteem, growth